東大新聞

1998년(불기 2542년) 4월20일(월요일) 제1247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부주간 고창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최정식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0561)770-2057

금주일언

만물은 물거품 같고 마음은 아지랭이 같으며 세상에 사는 것은 허깨비 같으니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하랴?

법구경 · 세속품 266절

1999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봉사활동 및 자격증 평가 제외시킨다

교과영역도 4개에서 3개로…모집단위는 미정

본교는 '9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준'을 확정했다.

전형일자는 서울캠이 나군을, 경주캠은 라군을 선택했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에 있어서는 특차모집의 경우 서울·경주 동일하게 △수능성적 60% △내신성적 40%이고, 정시모집의 경우 서울캠퍼스 주간 계열은 △수능성적 55% △내신성적 40% △논술 3% △면접 2%, 야간계열과 경주캠퍼스는 △수능성적 60% △내신성적 40%를 반영하여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입학과측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전형기준의 틀을 최대한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신성적 중 비교과영역에 대한 반영부분에서 종전과는 달리 봉사활동 및 자격증, 수상경력의 요소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종전의 경우, 이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활용이 불가능해 비교내신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고, 출결상황과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의 점수에 비례해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99학년도 입시에서 이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입학과측은 밝혔다.

또한 일선고교 교사들과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과영역에서도 기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줄였다.

그리고 특차모집의 지원자격은 수능성적 동일계열에 한해 서울캠의 경우 △인문계열 상위 7%(경찰행정학과는 4%) △자연계열 전자전기공학부와 산업시스템공학부 상위 10%이며, 건축토목공학부 상위 9%에서 8%로,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는 상위 10%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 △예체능계열 연극영상학부 이론·연출전공은 상위 4%, 경주캠은 △한의예과 상위 2%, △의예과 상위 4% △관광경영학부 상위 20%이내로 지원자격을 정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9학년도 모집단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모집단위나 증원 및 증과, 과명칭 변경등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4·19를 기리며… 지난 17일 '제29회 동국인 등산대회'에 참가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출발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총장과의 간담회 개최 오는 27일 그릴에서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는 오는 27일 오후 5시 30분 개교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본교 재학생 1백명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될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매학기 진행되던 것으로, 총장과 학생들간의 흉금없는 대화의 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문숙대 학생과장은 "일반 재학생들과 총장님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의 신청접수는 오늘(20)부터 24일까지 학생과에서 받는다.

'고학력 시대의 불교의 진로' 23일 학술세미나 열려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개교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불교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학력시대의 불교의 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로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후원한다.

도서관의자 8백개 교체

도서관 의자 교체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에 교체되는 의자는 총 8백여개로 학생들이 없는 야간에 주로 교체해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스물아홉번째 4·19 되새기기

북한산서 등산대회 열려…2천여명 참가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4·19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가 2천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 북한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에 4·19 기념탑에 집결한 후 참배와 기념사를 마치고 대동굔, 북한산장을 거쳐 도선사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산행이 진행된 후 오후 4시경부터는 장기자랑과 시상식이 이어졌다.

등산대회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4인 1조팀

△자연보호상=민족사연구회 86번팀, ROTC 40번팀, 농어촌연구부 163번팀, 도서관A팀, 관재과A팀, 돌벗 171번팀, 교수회 52번팀 △우수상=광고학과 광고학회 22번팀, 통계학과 60번팀, 일어일문학과 166번팀, 총무과A팀 △최우수상=교육방송국 79번팀

▲단체상

△행정부서 금상=관리처팀, 은상=도서관팀, 동상=총무처팀

△학과 및 단체 특별상=체육교육과 반도체과학과, 금상=법학과, 은상=토목공학과, 동상=경찰행정학과 수학과

송석구 총장은 폐회사에서 등반에 참여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감사한다"며 "4·19의 뜻을 다시 되새기고, 전 동국인의 합심협력을 통해 동국발전의 기회로 삼자"고 밝혔다.

4·19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본교에서 마련한 이 행사에 해가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어 더욱 뜻깊다. 문과대의 한 학생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라며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사제간의 정도 쌓고, 4·19도 한 번더 생각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등산대회에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참여보장', '학부제 확대 반대' 등의 띠를 두르고 참가해 새로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노조, 오는 30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경제불황시대 노조역할 강조

직원노조(위원장=김청옥)는 오는 30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는다.

오전 11시부터 중강당에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김청옥 노조위원장의 인사 △장운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의 축사 △송석구 총장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본교 중앙노래패 아리랑의 축하공연과 기념연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일우 사무국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지만,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황에서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개교 92주년 기념식 5월7일 문화관예술극장

제92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오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교 92주년 기념식'이 치러진다.

이병천 총무과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송석구 총장 기념사 △오녹원 이사장 치사 △황명수 총동창회장 축사 △근속상 및 공로상 수여 등의 순서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총무과의 오광진 계장은 "지난해는 학생들의 참여가 미흡해 아쉬웠다"며 "올해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알 림

중간고사 관계로 4월 27일자, 5월 4일자 신문은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제1248호)은 5월11일자로 발행합니다.

수계법회 및 점등식 개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3일 이어져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교수, 교직원, 학생,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계의 의의와 항목 해설 △참회 △연비 △수계 △계첩 수여 △정근 △발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치러진다.

수계신청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정각원 사무실에서 받는다.

안중철 법사는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악을 그치게 하고 선을 생장시킨다"며 "불자는 계를 받아야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30분 [illegible] 점등식을 개최한다. 연등은 부처님 오신날(5월 3일)까지 점등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3일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개최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치러지는 이번 법요식은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오녹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이법산 정각원장의 분향 및 관욕 △오녹원 이사장, 이법산 정각원장의 봉축법어 △송석구 총장의 봉축사 △청법가 △설법 △정근 △발원문 △사홍서원 △공지사항 △다과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참사람, 독거노인에게 후원금 지원키로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지난달 16일부터 모금한 후원금(월1백여만원)으로 중구관내의 독거노인 50명에게 월 2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독거노인들로 중구청 사회복지과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사람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직접 봉사 신청자가 적어 아쉬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하는 직접봉사 및 후원금 모금에 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리수

원력과 사명감

정 성 본 (불교문화대 불교학부)

대승불교는 구도자인 보살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깨달음을 추구하며(上求菩提)
또한 이러한 깨달음으로 체득한 지혜를
중생구제의 이타행(利他行)으로 회향하는
숭고한 보살도를 실천하는
자비구현(下化衆生)의 종교이다.
따라서 보살은 먼저 큰 원력을 세우고
이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구도자인 것이다.
보살의 원력은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네가지
큰 서원(四弘誓願)이 있다.
보살도를 닦아 자아완성을 위해
번뇌를 끊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며
지혜와 인격을 완성하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원력과 사명감이다.
법장보살은 48원을 성취하여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 극락정토를 이루웠으며 일찍이
약사여래도 12원을 세워 원력을 성취하여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보살은
모두 각자 위대한 원력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하였다.
또한 우리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과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원력은 무수히 많으리라.
원력과 사명감은 불굴의 구도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지주가 되며 목표가 되고 있다.
또한 각자의 지혜와 인격형성을 확립하는
방향설정이기도 한 것이다.
원력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자기 향상을 위한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며 따라서 자신의
창의적인 인생과 삶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우리들 인간은 짧은 생명으로 한정된 공간
속에 무상의 인생행로를 살아가고 있다.
다행히 불법의 인연을 만나게 되어 보살정신의
원력을 세우고 사명감을 가질 때
불퇴전(不退轉)의 확고한 삶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람있는 구도자의 길을 용기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력과 사명감은
우리들 인생의 생명과 삶에 뜨거운 열이 되고
힘을 솟게 하는 정열이 되며
생명력을 얻게하며 창조적인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원력은 무기력하고 불가능하며 나약한
우리들의 삶을 활기있는 삶으로 활성화시켜
줌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창조적인 삶으로 전환시키고
언제나 활기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젊은 삶으로 만들어 준다.
이러한 원력은 불법에의 철저한
신심과 확고한 신념으로
자기향상을 위한 구도적인
보살도의 자각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원력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과의
다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할 때 자기 향상의 구도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력과 사명감은 각자의 직업과 일에서
자신과의 고독한 투쟁으로
승화되어야 하며 자기자신만을 위한 소승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과 인류를 위한 대승적인
회향으로 꽃피워야 한다.

열린 교육의 힘찬 발걸음으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장을 창조합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개혁으로 각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여의 학부제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하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모여서 얘기합시다.
교육개혁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동대신문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민족동국 결의대회

제30대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는 오늘(20일) 오후 2시 불상앞에서 '학부제 혼란 극복, 학생참여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 저지를 위한 민족동국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구준서 총학생회장은 "입시요강 교육부 제출시한을 앞두고 모든 동국인들의 의지와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오늘부터 24시간 개방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도서관은 오늘(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층 2열람실의 24시만 개방을 실시한다.

지난해까지는 시험기간에 1층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했었으나 멀티미디어실로 인해 좌석수가 줄어들어 이번 4층 2열람실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오는 23일부터 불교도 주간 다채로운 행사 진행

불교대학생회(회장=최준호·불교4)는 오는 23일부터 불교도 주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3일 불상앞에서 예불과 불교도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24일=불교대 노래자랑 △26일-제등행렬(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27일=소쩍새마을 봉사활동 △28일=불교영화제 등으로 진행된다.

이과대 오늘(20일) 해오름식

이과대 학생회(회장=김기준·물리3)는 오늘(20일) 명진관앞에서 해오름식을 개최한다.

이과대 일일주점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해오름식은 노래자랑과 이과대 학생회장 옹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상대 학생회(회장=한우종·회계3)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동국관 앞 통일광장에서 해오름식을 개최했다.

"정보매체센터 소음 이달말까지"

정보매체센터 토목 공사로 인한 소음이 이달 말 부터는 줄어들 예정이다.

본래 3월까지 굴착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부지의 암반이 너무 딱딱해 부득이하게 이번 달까지 연장된 것이다.

한편, 정보매체 센터 부지는 현재 10m이상 깊이로 땅이 파인 상태여서 야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협, 97년도 잉여금처분 잠정 연기

각 주체들 조합원 배당금 등 입장차이 보여

학생대의원 29일 이전 재논의키로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지난 15일 6차 이사회를 열어 97년도 잉여금 총 5억여원에 대한 처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무국측과 학생이사 사이의 의견차이로 이사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번에 사무국측이 제시한 잉여금 처분안은 △법정적립금=매회계년도 20%이상 △임의적립금=매회계년도 20%이상 △조합원배당=출자액에 비례 은행정기 이자율(20%)이하 △복지환경개선기금(학교로 기부)=매회계년도 20%이상 등이었다.

반면, 학생이사들은 △법정 적립금=매회계년도 20%이내 △임의적립금=매회계년도 10%이내 △조합원배당=매회계년도 20%이상 직접배당, 출자액에 비례 은행정기 이자율(20%)이하 △복지환경개선기금=매회계년도 10%이내 △생활문화사업비=매회계년도 20%이상 등의 안을 제시, 사무국과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생협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전입금과 학교측에 기부되는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 조합원 배당금에 대한 사무국측과 학생이사들 간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생협 학생 대의원들은 지난 16일 '생협학생대의원회의'를 열어 잉여금처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적립금과 복지환경개선기금 최소화 △조합원배당금 최대화 등의 기본 사안만을 결정, 오는 29일 열리는 생협전체대의원대회 이전에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

총여, 총대에 특별위 제안

"여성운동 위해 필요"… 28일 결정날 듯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준비모임은 지난 14일 총대의원회(위원장=신현찬·연영4 이하 총대)에 '총대 관할 13대 총여 특별위원회 제안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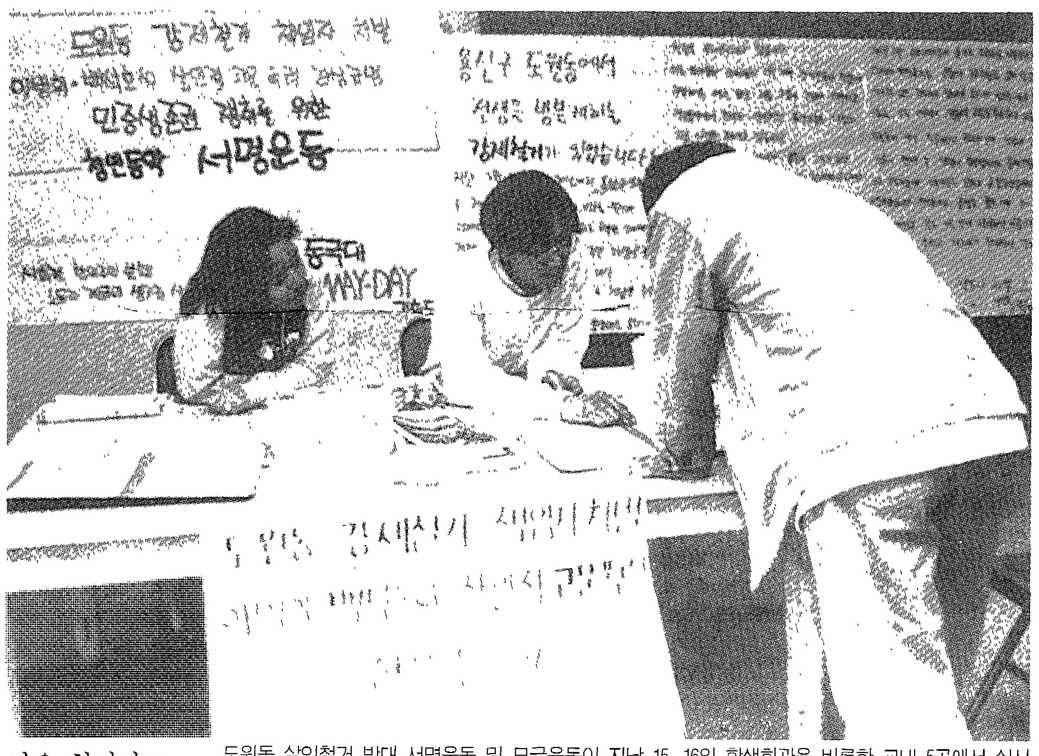
총여의 이같은 제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라는 학생회칙에 의거한 것으로 총여의 신순옥(영문3)양은 "동악내에서 여성운동을 담보하고 학생운동의 복원을 위해 총여 건설 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대측은 "총대 특별기구로서의 구체적 상이 잡히지 않았다"며 28일까지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총여측에 요구했으며, 같은 날 논의를 통해 총여 건설 특별위원회의 향방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산분배소위원회 회의

제30대 총대의원회(의장=신현찬·연영4)는 21일 오후 6시 총대의원회실에서 98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분배'를 위한 예산분배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각단위 학생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안을 바탕으로 각단위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 대해 신현찬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대 구성이 늦어져 회의 소집이 늦어졌지만, 각단위 학생회 운영을 위한 자리인 만큼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힘이라도… 도원동 살인철거 반대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이 지난 15, 16일 학생회관을 비롯한 교내 5곳에서 실시됐다. 사진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한 학생이 서명을 하는 모습. 남대철 기자

4·19선봉에 섰던 김반우 동문을 만나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 되길"

"김반우씨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본교생들에게 던진다면 과연 몇사람이나 안다고 대답할까? 지난 16일 문욱래 학생과장, 구준서 총학생회장, 배근호 총학생회 사무국장과 함께 김반우씨 댁을 찾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다.

4·19때 최선봉에 섰던 본교의 씩씩한 60학번 농업경제학과 새내기였던 그는 감회에 젖은 얼굴로 당시를 회상했다.

"왕십리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 자랐어. 그리고 60년도에 당시 농과대 농업경제학과에 입학했지. 4월 19일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한달하고 보름정도 대학생활을 했네"

1960년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하자 결국 이승만정권에 항거하는 전국적 시위가 3·15부정선거에 뒤이어 일어났고, 본교 또한 2천여명의 학생들이 경무대(현 청와대)로 향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은 정의를 위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거리상으로 우리학교가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학교 학생들이 먼저 도착했지. 이어서 고려대와 서울대 깃발이 보이더군"

경무대앞에 이르렀을 때 '생사'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진압하려는 경찰의 총에 맞고 말았다.

"내가 총에 맞은 게 오후 2시쯤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도육군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두달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군. 나는 기억을 못하는 데, 전해 들은 얘기야"

그는 무의식으로 보낸 2개월의 병원생활 이후로도 수도의대병원(현 고대부속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중대부속병원, 경희의료원등에 입원하고 수술을 12번이나 받으면서 13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다.

"입원중이던 64년에 학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는데 웬지 아쉽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 후배들하고 함께 말이야"라고 말하는 그는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동악의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 4·19.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엔 그날의 함성이 잊혀져가고 있는 듯 하다. 김반우 동문과 같은 역사의 주인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함으로써 동국의 역사를 되찾고, 나아가 우리의 현대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유철주 기자

졸업앨범·CD-ROM업체 선정

각각 그랜드 스튜디오·고신 미디어로

99년도 졸업앨범 및 CD-ROM업체로 각각 그랜드 스튜디오와 고신 미디어가 선정됐다.

업체 최종선정은 10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석·물리4 이하 졸준위) 주최로 총 9명의 졸준위 상임위원과 노지영(물리4)기획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원흥관(E402)에서 열렸다. 이날 선정과정은 졸준위 상임위의 업체실사를 통해 입찰자격을 얻은 그랜드·감골·천연 등 졸업앨범업체 3곳과 고신 미디어·세보 텔레컴 등 CD-ROM업체 2곳의 가격입찰과 업체 브리핑으로 진행됐다.

입찰가격제시에서 그랜드는 5만1천원, 감골은 5만4천원, 천연은 5만2백50원을 제시했으며 상임위의 투표결과 6표를 얻은 그랜드가 선정됐고, 또한 CD-ROM업체는 서울시내 다수 대학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은 고신 미디어가 입찰가격에서 1만원을 제시해 8천5백원을 제시한 세보 텔레컴을 제치고 낙찰됐다.

회전무대

분수 Vs 분수

○…지난 수요일, 흐린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 분수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뿜어져 나왔는데.

화창한 날씨에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분수와 달리 흐린 날씨에 뿜어져 나온 분수는 학생들에게 썰렁함을 느끼게 했다고.

IMF시대에는 날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법!

이에 한 학생 왈, "분수가 제 분수를 모르고 나오면 학생들은 분하답니다"

뒷풀이 장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전날인 지난 16일 2개 단과대가 해오름식을 치르고.

덕분에 이 두 단과대의 많은 사람들이 해오름식 후유증으로 등반대회에 참석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일부에서는 이들 단과대가 해오름식 뒷풀이의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자 4·19등반대회 맞이 휴강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에 대해 본 회전무대자 왈 "4.19기념 동국인등산대회 맞이 해오름식이었나?"

흔들 흔들

○…지난 17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백56명의 명의로 김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서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고보니 지난 대선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후보단일화를 한 것은 국무총리직이 그 대가라며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IMF한파로 흔들리는 한 나라를 한나라가 더 흔들고 있군"

다심다체

○…지난 주 금요일에는 4·19기념 등산대회가 있었는데.

북한산 등반을 마친후에는 참가한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장기자랑을 하고 등산대회 시상식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나 상을 받는 팀이나 단체는 환호성을 지르는데 반해 나머지는 하나 같이 묵묵부답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4·19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모인 동국인들이여, 그대들은 일심동체(?) 다심다체!"

98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1. 모집학과 및 인원 각 학과별 약간명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 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응용생물, 가정, 농, 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체육, 미술	-
경주 캠퍼스	한문, 화, 응용생물, 가정, 조경, 전자계산, 안전공, 한의학, 의학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2. 지원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 대학전학년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이상인 자
나)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전학기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
× 단, 평점평균 만점기준이 다른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3. 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4. 지원서 교부 · 98. 4. 22(수)~5.8(금)

5. 지원서 접수 : 98. 5. 6(수)~5.8(금)
지원서는 09:00~17:00까지 본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및 접수함.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본교 학술문화관 수위실에서 교부함.)

6. 전형일시 . 98. 5. 15(금) 10·00
※ 석·박사과정 동일계 출신이 아닌자도 응시할 수 있음(한의·의학과는 제외)

입시안내 인터넷주소 : http://dgucc.dongguk.ac.kr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260-3093~4, Fax 260-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국참사람 인증교육 제2기생 모집 안내

1. 동국참사람 인증 교육 목적

동국참사람 인증 제도는 졸업생의 전문능력과 인성을 학교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본 교육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가 **동국참사람인증서**를 수여하여 학생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신뢰하고 인식케하는 기회를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교육과정 · 인성교육(일주일간 공동체 생활),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교육, 컴퓨터 교육(세부 교육 내용은 상담시 안내)

3. 교육기간 . 98년 9월 ~ 99년 8월(1년간), 학기중에 교육

4. 모집인원 . 50명

5.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5. 11(월)~5.21(목) 09·00~17.00
나) 원서접수장소 : 취업과 취업자료실
다) 면접일시 및 장소 . 98. 5. 23(토) 10·00~, 취업과

6. 합격자 발표 98 5. 27(수) 취업과 게시판 공고

7. 응시자격 .
가) 98학년도 3학년 재학생(5학기 등록)으로서 평점평균 B0이상인 자로서
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8.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취업과 교부〉
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서 〈소정양식〉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9.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전형시 외국어(TOEIC, TOFEL)성적, 컴퓨터관련 자격증, 봉사활동실적 등 제출자는 우대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생처 취업과(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할 것 ☎ 260-3054~5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학 생 처 장

총장님과 대화와 만찬을...

친근한 총장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싶지 않습니까?
총장님과 만찬을 들면서 학교생활의 불편한 점과
학교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1. 일 시 : 4월 29일(수) 17·30
2. 장 소 : 다향관 교직원 식당
3. 접수기간 : 98. 4. 20(월)~24(금)
4. 접수장소 : 본관 학생과
5. 참가대상 : 본교 재학생

※ 행사진행 관계상 선착순으로 100명을 접수합니다.

학 생 처 장

IMF 비상구는 있~다!!

저학년을 위한 취업특강

심각한 취업난을 맞아 취업과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의 마당을 열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일시 : 98년 4월 22일 오후 2시~4시
2. 장소 : 본관 중강당
3. 참석대상 : 본교 2, 3학년 재학생
4. 강사 : 매경 취업뉴스 장재성 국장
5. 주관 : 학생처 취업과(☎ 260-3055)
※참석자는 출석확인서, 특강자료 배부 및 부업 우선알선

학 생 처 장

본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불교미술품 특별작품전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에 동참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교미술품 특별전을 개최하오니 동국 가족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98년 4월 28일(화) ~ 5월 8일(금) 10·00~17:00
장 소 . 본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전시장
전시품 : 불화, 조각, 서예, 도자기 등 100여점
연락처 불교대학원(☎ 260-3098) 문화예술대학원(☎ 260-3607)

※ 전시회 판매수익금은 전액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기탁되오니 주변에 적극 권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대학원·문화예술대학원·동국불교미술인회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우리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용인 에버랜드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이용권을 다음과 같이 할인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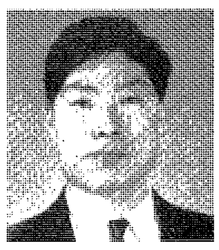
다 음

1. 구입 대상 : 생협 전체 조합원(교원, 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2. 구입 가격 : 44,000원(일반가) ⇒ 28,000원(판매가)
3. 판매 장소 : 구내 서점(다향관 지하), ☎ 260-8956
4. 대중 교통편
1) 강변역(경기대원 고속관광, ☎ 201-7710)
2) 양재역(경기대원 고속관광, ☎ 575-7710)
3) 분당 서현역 삼성 플라자앞(경기대원 고속관광, ☎ 201-7710)
5. 기타 문의 : 에버랜드 서울 판촉팀(☎ 02-756-1400~11)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법 개정안 시사논단

당리당략보다 헌법기능 구현하자



정 연 주
법과대 법학과 교수

최근 여야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협상내용이 민주주의의 구현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의 헌법정신에 따른 정비가 필수적이다. 즉, 다원적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권력분립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내용 중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제도와 관련된 사안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특별·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직으로의 전환은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말은 차제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없앨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특수성, 지역적 광활성, 주민의 지역적 종속도 등에 비추어 오히려 군밑에 또는 군을 대신하여 읍·면을 기초단체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반해 특별시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적 협소함과 균일성, 주민의 희박한 지역적 종속도 등 통합생활권적 성격에 비추어 굳이 자치구라는 기초단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기초선거의 경우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원의 경우도 정당공천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비록 기초단체차원에서 정당이 개입함으로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당공천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정당국가에서 정당이 기초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후보자의 정당가입·활동권이라는 참정권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이며, 외국의 입법례도 그러하다. 둘째, 단체장이 임기중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국회의원 등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당사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셋째, 노조의 정치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굴절없는 국정에의 반영이라고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후보자의 연합공천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비록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야합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적어도 헌법상 복수정당제가 보장된 이상 복수정당간의 연합공천은 다양한 정책공조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약 30% 가까이 감축시키는 문제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감축폭이 너무 작다. 과감하게 대폭 감축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유급제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와 같은 무보수 명예직제도하에서는 지방의원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회기제한을 없애 지방의회를 상설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광역의회 선거에서만이라도 비례대표제를 대폭 도입하여 정치꾼이 아닌 참신한 전문가와 다양한 이익집단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을 늦추고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비록 당사자들에게는 유리한 소급적용이나, 이미 사퇴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사로서 평등권침해 등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일곱째, 기탁금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의 20%로 강화시킨 것은 참신한 젊은이의 입후보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지금까지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협상 중 지방선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와 더불어 차제에 주민 내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와 출구조사 및 여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내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의원이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공직윤리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일본문화 수입 냉정하게 처신하자

일본대중문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상륙한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성격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수입규제해 왔던 일본대중문화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김대통령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자리에서 직접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방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문화 수입에 대한 수많은 찬반론이 나오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이뤄지곤 했다. 서울대 대학신문이 조사한 설문결과(1998. 3.16)에 따르면, 서울대생중 70%이상이 일본대중문화 수입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극단적인 반대는 소수여서 한동안 사회에 충격을 준 일이 있다. 기존 대학문화를 생각해볼 때, 일본문화 수입은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분위기였다. 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 급속히 확산된 '우리것 찾기 운동' 등을 비롯 민족문화를 창달·구현하자는 정신과는 맞지 않는 정서였다. 게다가 오랜 시간 쌓여온 반일감정의 문화적 토양 속에서 이러한 주장들은 매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일본대중문화를 규제해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린 손쉽게 일본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인터넷, PC통신 그리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여러 매체를 포함해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직가능했다. 이제 공공연한 비밀을 드러내 공론화시킬 뿐이다. 그 효과는, 예전에 여과없이 유입됐던 저속문화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계기로, 혹은 막연한 신비감으로 다가왔던 일본 문화의 실체를 직접 접해 올바른 문화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이제 음양으로 침투해오는 일본대중문화를 제도적 규제로 막는 일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저속한 문화유입만 한층 늘게 해 줄 뿐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같이 '무조건' 반대입장은 대학가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로도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국수주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국 문화를 잘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에 의해서 보다 더 잘 지켜질 것이다. 문화의 폐쇄주의를 버리고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를 펼쳐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이다.

학생회 하나된 목소리 아쉬워

경주캠 학생회가 위태로운 곡예줄을 타고 있는 듯하다. 학부제, 식비, 등록금 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유례없는 단대 학생총회가 4월 7일 자연대에서 성사됐고, 연달아 지난 16일에는 인문대도 학생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학내의 긴급한 사안들을 학생총회를 통해 직접 해결하려는 방식은 일반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반길만 하다. 그러나, 단대 학생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그 속 내용을 잘 뜯어 보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학부제·식비 등의 문제는 단대 학생총회 차원에서 풀기보다는 총학을 위시한 중앙기구의 차원으로 격상시켜 해결해 나가야 할 전체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운위 차원에서 힘을 모아 현안을 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결함을 안고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사업은 벌써부터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단대 학생총회 이후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연대의 학생총회 이후 열린 바 있는 3처장 간담회를 인문대 측에서도 똑같이 요구하고 나서자, 학교측이 단대 학생 단위의 중구난방식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은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린 학교측을 일방적으로 탓하기 이전에 단대 학생회의 학생총회를 통한 접근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있어 보인다.

그런 데다가 지난 해 총학이 탄핵된 이후 중운위 상에서 아직도 총학의 위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운위의 논의 자체도 '탁상공론'의 한계를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안타깝다. 식대문제가 중운위 상에서 꾸준하게 논의는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런 형편을 잘 대변해 준다.

본교 전산망 정보유출 위험소지

범법행위 인식 · 보안시스템 확충 … 범죄예방 지름길

지난해 개발된 동국종합정보시스템 2545(이하 DRIMS)는 학사·연구·행정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동시에 개인정보유출과 학내정보누출의 위험소지를 갖고 있다.

DRIMS는 Clien/Server방식을 도입해 학내 근거리통신망(LAN)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DRIMS는 도서검색,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RIMS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후 학생, 교직원, 교수 모든 학내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개인정보가 학사행정 외의 목적으로 악용됐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는 학사행정담당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타행정부서 교직원 또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인적사항, 성적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말소는 담당자만이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열람,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보관리과 김강수 과장은 "행정부서에서 행정업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에는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유출은 곧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타인의 정보훼손·침해·도용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형량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외부인에 의해 학내정보망이 해킹되는 경우를 대비해 정보관리처는 지난 3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실시간 침입탐지 시스템(Realsecure)과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Boks) 을 운영중인데 실시간 침입 탐지 시스템(Realsecure)은 별도의 Server가 구축되어 있는 교내 컴퓨터에 해커가 침입해 부정적인 행동을 범했을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Boks)은 학사행정시스템, 홈페이지시스템, 인터넷 메일시스템 등을 본교에서 인증받지 못한 사람이 접근할시 접근을 통제·제어할 수 시스템이다.

지난 2월 한 해커에 의해 인천교대를 비롯한 4개 교육대학과 동양공업전문대의 전산망에 포르노 화면이 게재된 사실이 밝혀졌고 96년 5월 과학기술원의 해킹방지를 연구하는 대학생 두명이 포항공대와 이화여대 전산망에 침투해 교수 및 연구원들의 연구자료를 파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7월 제주대 학생은 대학 전자계산소 메인 컴퓨터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을 2년간 조작했다가 들통난 경우도 있었다.

아직 해킹문제에 대해 1백% 보안이 철저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증가와 정보통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실제로 정보관리처는 국제정보대학원 정보보호학과의 한국정보보호센터 겸임교수와 해킹에 대한 진단과 연구에 대한 조언을 수시로 받을 예정이다.

원격영상교육, 가상대학, 홈페이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LAN구축 등 대학의 정보망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망의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유출, 학내정보누출 방지는 본교 사무화 자동화 시스템인 DRIMS가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학정보화물결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한 본교는 사무자동화라는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학사행정을 이룰 수 있지만 정보누출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DRIMS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 안될 것이다.

오인택 기자

동국만평 김경일

아니 이 옷도 잘 안맞는데, 그런 옷을 주면 어떻게 해요?

열린대학 추진운동 '대학이 일어서야 나라가 산다'

'희망만들기 21' 대학생 자원봉사 지원사업

'대학생 1만 구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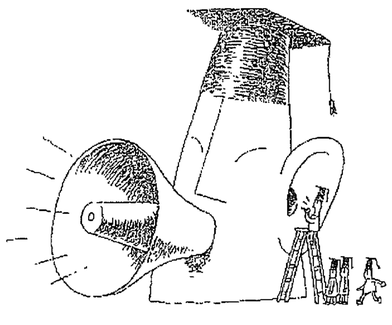
열린대학 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대학생상의 구현'을 목표로 대학생 자원봉사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에 '자원봉사 상담은행'을 개설,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학생단체·동아리·개인 등)과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기관,시설,단체에 연결시키는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자원봉사 자원기금'을 마련하기위해 1구좌를 5,000원으로 책정, '대학생 1만구좌(5천만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대학인 1만구좌 만들기 운동' 후원안내

●목적 - 자원봉사 대상기관의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요원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
●기금 1차 목표 - 총 1만구좌(50,000,000원)로 설정
●기금조성방법 ▶1구좌를 5,000원으로 책정, 대학생 1구좌 만들기 운동의 전개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전개(저금통 배포)
▶기업 및 일반사회 인사의 후원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확충
●지원효과 - 자원봉사 활동 연인원 기준 5,000명 - 1만명 지원효과 기대

●후원방법
'대학생 1만구좌 만들기' 운동에 참가, 후원하실 분은 별지의 '자원봉사 후원신청서를 를 작성, 본회로 접수한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된 내용은 대학문화신문 지면을 통해 후원자의 성명,소속,후원금액을 명기하여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뜻있는 대학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후원구좌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 조흥은행 534-01-001480 • 우 체 국 013086-0221724
• 국민은행 059-01-0522-638 • 주택은행 445701-01-002081



대학문화신문 열린대학추진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세정빌딩 4F(137-030)
대표전화:3446-1667/팩스:3446-4874/유니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ID·UCPress

■ 자원봉사 상담은행- '희망 21' 개설

●목적 -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연결해주는 창구를 마련, 자원봉사를 원하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에게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자원봉사 활동분야
• 노력지원 봉사활동(농촌일손돕기,도시빈민 지원 자원봉사 등)
• 대학생 무료교육 지원활동(컴퓨터 교육/초중고생 무료과외/탁아 등)
• 불우사회기관 자원봉사 (고아원,양로원 기타)
• 사회 각종 시민단체 자원봉사
• 환경,의료지원 자원봉사
• 기타 분야의 자원봉사등

●신청방법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 단체 및 개인은 별지양식에 준해 '자원봉사참가 신청서'를 작성 본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신 분들께는 접수증을 발부해 드림과 아울러 봉사활동을 요청하는 기관과 연결시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참가후에는 '열린대학 자원봉사단' 참가증을 교부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참가 · 후원)신청서

공통	성 명 (대표자명)		성 별	
	소 속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기 타 휴대폰/호출	
	주 소			
자원봉사신청	봉 사 분 야	(본인이 희망하는 봉사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		
	활동기간 및 기타사항			
후원기금신청	후 원 구 좌	(1구좌는 5,000원 입니다.) ( )구좌 (원)		
	입 금 방 법	은행구좌 ( ) 은행		

본인은 열린대학 추진운동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며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참가, 후원)을 신청합니다.

1998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대학문화신문 열린대학추진위원회 귀중

●위 양식에 준해 작성 우편 또는 팩스(3446-4874)를 통해 본 위원회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악로

화합·단결

"자연보호상! 민족사연구회 86번팀, ROTC 40번팀, 농어촌연구부 163번팀…" 지난 17일 '4.19 동국인 등산대회'를 마치고 도선사에 모여 사회자가 수상팀을 호명하는데도 '정말 2천명이 모인거 맞아?'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썰렁하다. 몇시간의 등산길에 지쳐서였을까. 수상팀 소속원들만이 환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박수조차 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시상식 후 구준서 총학생회장의 인사말이 시작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우산을 펼치느라 정신이 없다. 마지막으로 "응원가를 부릅시다"라는 총학생회장의 제안에 모두들 마지못해 일어나고 그렇게 시작된 응원가는 어느새 돌림노래로 끝을 맺는다.

행사를 마친 후 기념품으로 나눠준 파란색 모자를 쓰고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태극기 배지를 단 학생들이 각 단과대 깃발과 과깃발을 앞세우고 이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몇몇 단과대의 학생들은 대열을 이탈해 독주하기도 하고 비가 오는 탓에 두세명씩 모여 우산을 쓰고 대열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차들은 지나가려다가 흩어진 대열에 막혀 머뭇거린다.

취업과의 한 직원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숫적으로는 증가했지만 행사에 참여는 활발하나 단결력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다"며 아쉬워 한다.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도 올해로 벌써 29번째를 맞이했다. 매년 등산대회를 마련하는 이유는 4.19정신을 계승하고 동국인들이 서로 화합·단결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참여 보장', '학부제 전면 확대 반대' 등의 띠를 두르고 플래카드 등을 휘날리며 선전전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모두가 모여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도 중요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전국연합 총묘집회 개최

학생연대집회 불구 IMF재협상 초점 맞춰 아쉬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 이하 전국연합)은 지난 15일 종묘공원에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를 위한 결의 대회'와 '부당한 IMF 이행협약 철회와 재협상 및 재벌개혁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3백여명의 학생,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집회는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의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규탄발언과 민가협 서경순 어머니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회와 양심수 석방 촉구발언을 시작으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대회사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정리해고제 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재벌개혁 촉구발언 △오병윤 전국연합 IMF 특별대책위원장의 부당한 IMF 이행협약 철회 및 재협상 촉구발언 △명지대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IMF 이행협약의 시정과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치러졌다.

전국연합은 "기존의 IMF 처방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 증거로 협상후 국민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며 "따라서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경제주권 확보와 경제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이행조건들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갖게 됐다"고 이번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집회 후 학생들과 시민들은 플래카드와 깃발을 휘날리며 명동까지 선전전을 펼쳤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일 영남대에서 예정되었던 한총련대의원대회가 정부의 저지로 무산된 후 가진 학생들과 시민단체와의 첫 연대집회였다. 하지만 전국연합은 전체적으로 IMF 재협상에 쟁점을 두고 이번 집회를 진행해 아쉬움이 남는 자리로 평가된다.

남대철 기자

4·19 항쟁 세미나

폭넓은 인식의 틀거리 제공한 자리

"4·19혁명은 구체적으로 3월 15일 마산 [illegible] 의 민중항쟁을…"

사회과학연구회(회장=김종인·사회과학계열2) 15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여 '4·19의 의의와 한계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처음으로 일어난 반국가적인 의지라는데 의미를 두고, 민중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것을 현재적 시각에서 되돌아보기위한 의도였다"라며 김종인 회장은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1960년 4월 19일은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성인들이 반독재와 반외세, 그리고 민족의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온 그 날이다. 특히 대표적인 민족사학인 본교 학생들이 당시 4·19의 선두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항쟁이었다.

이 정신은 지금도 학생들 사이에서 이어져오고 있다. 사회과학연구회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내의 학회 및 소모임, 동아리 등이 그 주축을 이루어 해마다 4·19항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인다. 특히 지금까지 일률적인 교육을 받아온 1학년들에게 4·19 세미나는 그동안 알던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폭넓은 면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의 틀거리를 바꿔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새내기 신인철(사회과학계열·1)군에게 몇마디 들어보았다.

-준비과정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4·19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사건 자체일뿐이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관련 책들도 많이 읽고, 선배들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공부했다.

-세미나를 하고 나서의 4·19에 대한 생각은

=우선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부조리를 민중들의 힘으로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깨닫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실천 할 수 있는 용기일 것이다.

-세미나 후에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학생운동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전에는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 더불어 5·18, 6·10항쟁 등에 대해 더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박영실 기자

법조부조리 개혁 점검

사적법률서비스 본질적인 구조조정 기대

최근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법조부조리를 보면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변호사 등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은 고통분담차원에서 IMF의 무풍지대에 있는 것 같다. 특히 고통분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변호사·검사·판사 등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IMF의 무풍지대를 없애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므로 법조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국민에 대한 공적·사적 법률서비스의 구조조정을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브로커 고용 변호사'에 관련된 '사적 법률서비스'의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의 방향을 점검해 본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의 옹호자, 사회정의 실현자로서의 사명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국민의 이익을 내세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정부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사명을 저버리고 법조비리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에 대한 사적 법률서비스의 구조조정방안으로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판사·검사의 변호사개업시 개업지 제한(판사·검사의 비리로 인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조세형평실현을 위한 수임사건에 대한 영수증 교부 법제화 △형사재판의 경우 합리적인 양형기준표 도입 △법률구조의 확대 △재교육제도의 체계화 및 법조윤리의 강화 △내부고발자를 우대조치하는 법제도 채택 △민사조정제도 등의 활성화 △수임료와 성공사례금의 합리적 조정 △법조일원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몇가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체제하에서 본격화된 국제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법적인 해결을 요하는 국제적 사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법조인구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특히 WTO체제하에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불원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특정분야(환경, 지적 소유권, 노동, 세무, 특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를 다루는 전문변호사제도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도 법조인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법조계에 만연된 '우리가 남이냐'라는 식의 판사·검사·변호사간에 지나친 동류의식, 법을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사고, 결과적으로 빚어지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간 유착 등이 법조부조리 실상이다. 판사와 검사는 옷을 벗은 후 약 2년간 전관으로 대접받으며, 전관이 맡은 사건에는 특별한 사건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현직 판사·검사도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전관예우에 소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된, 판사와 검사들의 변호사개업시 개업지 제한규정을 다시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제한은 종전처럼 재조경력 15년 이하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실개입에 의한 법조윤리의 침해방지 취지를 살리면서 재판부의 평균적인 전관예우기간인 2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참 변호사의 경우 단독개업제한 조항도 두어 신참 변호사들이 브로커에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직중에 비리가 밝혀져 형사처벌, 징계 등을 받은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개업도 제한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등록거부 또는 개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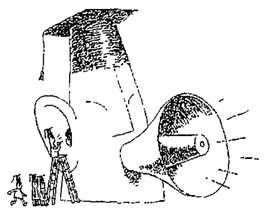
셋째, 변호사는 조세형평실현을 위해 '세금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IMF체제하에 사회 각 부문이 투명하고 정직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조분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아 상당액을 법관에 대한 로비에 쓴다면 그 법률서비스를 과연 양질의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임료는 결국 거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변협은 모든 수임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영수증(수임료 및 성공사례금)을 의뢰인(개인 또는 법인)의 조세 및 회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조비리를 막는 첩경은 무엇보다도 변호사 수임료를 투명화하는 일일 것이다.

끝으로 '의정부 비리' 파문에도 경찰과 변호사간에 검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보더라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처럼 비경쟁적인 체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사회에 맞게 국민에 대한 사적 법률서비스제도의 구조조정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는 과연 정의의 수호자인가"라는 반문을 받지 않도록 일부 변호사들의 의식도 그에 상응하도록 구조조정되어야 할 때이다. 국민에 대한 사적 법률서비스의 구조조정 방향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남궁승태
대불대학교 법학과 교수

IMF 극복을 위한 국민과 대학의 새로운 만남 - 대학문화신문 '열린대학추진' 캠페인

"대학이 일어서야 나라가 산다"



열린대학 추진운동 취지문

새로운 일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가 목전에 다가왔다.
정보화,세계화,국제화로 요약되는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의 통합'을 이루고, 동북아의 패자로서 당당히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고자 했던 우리의 소망은 오늘에 이르러 많은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른바 'IMF 경제통치'라는 말로 표현되는 오늘의 상황은 참으로 비통하기만 합니다.

나라의 경제주권은 상실했고, 기업의 부도와 도산,정리해고로 아버지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라 더 알하지만 월급은 깍이고,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성장 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육박, 다섯가구 중 한집의 가장이 실업의 낭떨어지기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위기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그리고 대학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사회참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은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의 암흑기에 우리 대학은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의 꿈과 희망을 위해 헌신함으로서, 비통과 절망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왔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새롭게 나서야 합니다.
어려움속에서도 장롱속에 고이 간직하던 '금'을 내놓는 국민들을 보면서, 오랜 고생에 대한 보답도 받지 못한 채 쓰라린 가슴을 안고 거리로 내몰린 우리들의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대학은 새롭게 나서야 합니다. '교수임용비리 사건'이나 '도피성 군입대 현상'이 시사하듯, 오늘의 대학사회 현실에 대한 준엄한 자기비판과 반성속에 '자정과 개혁'을 이루어 내야하며, 그간 우리들 대학생 스스로의 생활속에 만연된 '거품'을 적극적으로 걷어내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 국민을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대학은 우리시대의 정신이며, 사회의 지표입니다.
대학이 사상과 지성을 올곧게 키워가고 시대적 소명에 충실한다면, 우리사회의 그 어떤 위기와 난관도 반드시 극복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학사회의 발전과 건강한 대학문화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이 일어서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아래 2백만 대학인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열린대학 추진운동)을 전개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열린대학추진운동을 통해 '대학과 기업', '대학생과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잃어버린 '우리들 모두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내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열린대학 운동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열린대학'은 IMF 국난 극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한 350여개 대학의 시설과 10만여명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실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시민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시민창업강좌' '시민 교양강좌' 등의 적극적 개설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연극제, 영화제, 음악회등 대학의 각종 문화행사와 대학축제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에서 추진함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열린대학'의 대학생은 국민들을 향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단체나 동아리,기타 개인단위의 중소기업 자원봉사, 농촌봉사활동, 도시빈민봉사활동, 의료 환경자원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전개를 통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또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불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대학생상을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열린대학'의 대학생은 '경제자주권회복운동'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난을 맞아 요원의 불꽃처럼 타올랐던 '국채보상운동'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계승, 대학사회에 만연한 '거품'을 걷어내는 자기반성과 의식개혁작업을 통해 사고와 발상의 일대 전환을 이룸과 아울러 '경제자주권 회복운동'의 전초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2백만 대학인 모두가 사치와 향락풍조를 배격, 근검절약의 기풍을 진작하며, 우리의 국산품을 애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함으로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앞장서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대학문화신문은 이러한 '열린대학'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대학과 기업, 대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결집, 다각적인 형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백만 대학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확신하면서, 대학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1998.4
대학문화신문 열린대학추진위원회

열린대학 추진운동의 전개방향

1. IMF 국난극복의 진원지로서 '열린대학' 건설
- 교 육 — 대학시설 자원의 개방/실직자 재교육 강좌 및 시민창업강좌 개설
  청년실업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설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시민교양강좌 개설 등
- 문 화 — 대학행사(영화제, 연극제, 음악회 등)에 지역주민 참여 유도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축제', '운동회'의 개최
- 기 타 — 실직자를 위한 쉼터운영(무료탁아소 등)

2.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대학생상 구현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개최
- 농촌 지원 — 춘계·여름 추수기 농촌봉사활동의 적극적 전개/농산물 직판장 개설
- 사회봉사활동 — 탁아소, 양로원, 고아원 등 불우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3. 경제자주권 회복 운동의 첨병으로서의 역할 수행
- 대학사회의 '거품' 제거를 통한 대학개혁운동
- 자기반성과 의식개혁을 통한 발상의 전환
- 사치, 향락풍조의 배격을 통한 근검절약의 건전한 기풍 진작
- 경제자주권회복을 위한 범대학 캠페인의 전개
- 국산품 애용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운동의 지속적 추진

문의 :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세정빌딩 4층
대학문화신문 열린대학추진위원회
대표전화 3446-1667/ 팩스 3446-4874

본교 홈페이지 진단

"학교 정보 클릭만 하세요"

쉽고 간편한 데이터망 구축…지속적 보완 필요

- 본교 전산화는 타대학에 비해 우월하면 우월했지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컴퓨터 보유 대수는 점점 늘고, LAN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90% 이상 차지.
-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위해 최근 개장한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최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아직 미흡.
- 홈페이지는 깔끔하게 구성돼 있지만, 초보자가 모두 이용하긴 아직…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심마니(http://simmany.chollian.net)를 이용해 '동국대'를 검색하면 대략 95개의 사이트가 나타난다.

개인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단대 및 전체 홈페이지, 정보관리처 홈페이지 등 관련된 사이트가 상당수 된다. 이 검색사이트에 따르면 본교의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모두 기관(3), 동아리(3), 방송국(1), 연구실(9), 학과(12) 학부 및 단과대(5)로 표시된다.

본교 메인서버(http://www.dongguk.ac.kr)에 접속하고 '대학안내'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총장 인사말씀 △불교성전 △학교로고 및 심볼마크 소개 등 학교홍보 및 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 및 타대학생들을 위해 입학 및 편입제도 등을 표시한다. 대학생활정보를 클릭하면 취업/부업, 유학안내, 장학제도, 학생생활상담, 벼룩시장, 교직원 전화번호 안내가 나와 있다.

건학이념, 역사, 건물시설현황, 학사일정, 학사년도 및 학기, 입학 및 편입학 정보, 이수과정 및 학점, 학사내규, 장학제도, 해외 자매학교, 유학생 정보 등도 학교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대학별로 각 단과대 별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단대 홈페이지를 정보관리처가 아닌 각 단대별로 관리하는 곳은 표시를 다르게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각 단대별로 교수들의 약력 및 학업이수에 대한 정보를 외부인도 열람할 수 있어, 본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동국 인트라넷(http://cakra.dongguk.ac.kr)에 접속하면 하위항목으로 음악나라, 대화방, 공지마당, 여론광장, 인터넷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사행정서비스, 부속기관, 입시관리 등이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의사항방을 만들어 이곳을 접속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곳도 있는데, 4월15일 현재 모두 19명이 글을 올렸으며 학과에 대한 문의, '학교배지를 달고 싶다', '학생증을 바꾸어 달라', '개인 홈페이지 계정을 해달라' 등 개인적인 의견들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Q&A에서 개별질문을 하면 바로 그곳에서 답변을 운영자가 해준다. 더불어 문의사항은 바로 서버관리자에게 Email로 보낼 수 있게 해놓았다.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성이 깔끔하다는 이용자의 평을 듣기는 하지만, bbs형식으로 운영되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학사일정이나 학교소개에 그치고, 인터넷을 어느정도 알아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요즘 활성화되어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아직 인터넷이라는 개념과 이용에 있어 초보적인 것을 감안하면 쉽게 검색하고,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구축해야 한다.

서울대 홈페이지(http://www.snu.ac.kr)의 경우, 우선 새소식, 학교소개, 학사안내, 게시판, 코스웨어, 생활정보안내(전국우편번호안내, 전자전화번호 서비스, 학생생활정보(개인문제 상담/조언문제), 동아리 활동안내, 개인문제상담, 교통정보, 문화/레저광고)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강의시간표 및 지하철 노선도 등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홈페이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경희대 신문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희대 홈페이지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70%이상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희대 홈페이지의 단점으로 학내 여러 홈페이지의 연결 및 효율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학생편의 기능의 부족,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

접근통계에 따르면 4월18일에 본교 사이트에 모두 9천8백3명이 접속한 것으로 추산된다. 4백60명(4.69%)은 본교 내부에서 9천3백43명(95.3%)은 외부에서 접속한 것이다.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4개 통신사에는 '동대동'이라는 본교생들이 중심되어 이루어지는 동호회가 존재한다. 그곳은 학생들의 여론은 형성하고 친목도모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도 학생들의 이런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많은 학생들의 이용과 비판이 더 나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정식 기자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을 아시나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최첨단 정보검색공간

"학생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를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아요. 그냥 부담없이 들어와서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서관 1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실 관계자의 바램이다.

학생들을 비롯한 전 동국인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멀티미디어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일 개장을 한 후 15일까지 이곳을 찾은 학생은 총 7백11명으로 하루 평균 7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멀티미디어실은 하루 총 수용인원이 2백여명에 달하는 최첨단 정보검색 공간이다. 이곳은 영상매체실과 전자정보실로 나뉘어 있는데, 영상매체실에서는 모든 공중파 방송 및 위성, 케이블 방송등의 수신이 가능하며 이중 11개 채널을 선정해 서비스 하고 있다. 전자정보실에서는 PC를 이용해 TV시청, VOD, CD-ROM, 워드작업, 비디오 테잎등의 비도서 자료, 개인 소유의 비디오 CD등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내 망이 정상화되는 이번주 안으로 인터넷 이용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강의 및 세미나 생방송 혹은 녹화방송 △각종 학위 논문의 검색 기능 등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먼저 입구 좌측에 비치된 신발장에서 실내화로 갈아신어야 한다.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조용하고 깨끗한 실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내화로 갈아신었으면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간단한 양식이니 부담없이 쓰면 될 것이다. 다음 영상매체실과 전자정보실 이용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받은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TV를 시청하면 된다. 또한 외국어 교육원처럼 별도의 이용증을 마련하지 않고 본교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들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멀티미디어실, 이곳 관계자의 바램처럼 많은 학생들이 부담없이 이용해 본교 정보의 메카로 위치해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컴퓨터실습실 시간표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공강시간때이고, 본 실습실 시간표는 11개 실습실중 GI, EK 실습실을 제외한 시간표이다. 수업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컴퓨터 실력을 키우자.

98학년도 1학기 컴퓨터실습실 학기중 개방시간

평일

컴퓨터실습실EA	오전 9시~오후 10시
컴퓨터실습실EB	오전 9시~오후 8시30분
컴퓨터실습실GC	오전 9시~오후 10시
컴퓨터실습실JE	오전 9시~오후 6시
컴퓨터실습실LF	오전 9시~오후 10시
컴퓨터실습실MG	오전 9시~오후 8시30분
컴퓨터실습실AH	오전 9시~오후 6시
컴퓨터실습실GI	오전 9시~오후 10시
컴퓨터실습실KJ	오전 9시~오후 10시
컴퓨터실습실EK	오전 9시~오후 10시
컴퓨터실습실FL	오전 9시~오후 10시

토·일요일

컴퓨터실습실GI	오전 9시~오후 9시
컴퓨터실습실EK	오전 9시~오후 9시

컴퓨터실습실 EA(원흥1관 5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EB(원흥1관 3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FL(원흥2관 지하1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GC(혜화관 1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JE(학림관 3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KJ(문화관 2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AH(과학관 1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LF(동국관 L동 4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컴퓨터실습실 MG(동국관 M동 2층)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 오전 08:00 ~ 08:50					
1 오전 09:00 ~ 09:50					
2 오전 10:00 ~ 10:50					
3 오전 11:00 ~ 11:50					
4 오전 12:00 ~ 12:50					
5 오후 13:00 ~ 13:50					
6 오후 14:00 ~ 14:50					
7 오후 15:00 ~ 15:50					
8 오후 16:00 ~ 16:50					
9 오후 17:00 ~ 17:50					
10 오후 18:00 ~ 18:45					
11 오후 18:45 ~ 19:30					
12 오후 19:35 ~ 20:20					
13 오후 20:20 ~ 21:05					
14 오후 21:10 ~ 21:55					
15 오후 21:55 ~ 22:40					

정보관리과 김강수 과장을 만나

"본교 전산화 수준 타대학 비해 앞선다"

전문인력보충·지속적인 시설투자 병행되어야

정보관리과 김강수 과장을 만나 본교 '전산화'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최근들어 전산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 학사업무는 물론 인사관리, 구매시설, 비품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적 교류, 직원들의 보다 빠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산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 본교의 전산화 수준은 어느정도이며, 전산망을 이용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 현재 컴퓨터 구비 정도는 1인 1대 수준이 안되지만, 본교의 전산화 수준은 다른대학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본교 컴퓨터의 90%정도가 LAN에 연결되어 있어 빠른 데이터 전송·수신을 할 수 있으며,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 원격영상교육 및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 지원과 교육,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국종합정보시스템 2545 DRIMS(Dongguk Revolution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침입탐지시스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공문서의 형식과 절차 개선을 위한 교내 사무자동화를 추진, 오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지난해 어느신문의 대학 전산화 평가에선 본교가 순위 안에 못들었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 평가기준이 공정하지 못했다. 본교가 컴퓨터 대수, 운영조직 및 인원이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인력보충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전문화된 인적 자원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올 한해 동안 직원을 선발하지 않겠다는게 본교 방침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 보다 나은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게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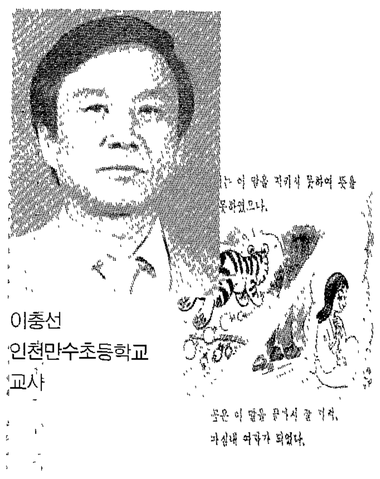
= 기술발전에 따른 즉각적인 환경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산망을 이용한 교육·행정 소프트웨어 개발·구입은 더 좋은 기술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따라줘야 한다. 학교측의 투자는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용환 기자

우리의 조상이 곰이라니!…교과서 정정 소송제기

"단군,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뿌리' 바로 세워 '새싹' 돌보려는 이충선 교사



이충선
인천만수초등학교
교사

많은 사람들이 '단군신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환웅과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사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하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만수초등학교 교사 이충선(59)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같은 '신화'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며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교과서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실천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소송제기의 계기는.

=우연히 6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 및 '사회'·'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단군에 대한 내용이 왜곡돼 실린 것을 보았다.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데 이러한 것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민족의 조상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청와대에 민원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교육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그들의 말은 '삼국유사'·'제왕운기'에 나온 설화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윤색한 것이라는 '영터리'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교과서내용 일부 정정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단군설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단군의 이야기가 '설화'나 '신화'로 불려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단군신화'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서 고조선의 실재(實在)를 부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쓰인 말인데 이는 '사기(史記)'라 불려져야 함이 옳다. '삼성밀기'나 '단군세기' 등에 보면 '웅씨네 딸로 하여금 황후로 삼고' 구절이 나오는 등 확실히 단군의 어머니가 인간이었음이 나타나 있다.

-법원 판결은 언제쯤.

=오는 23일 즈음 판결이 나올 것이다. 법원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곳이니 만큼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패소한다면 끝까지 교과서 정정을 요구할 것이다. 민족과 국가가 발전하려면 역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 시대, 굳이 단군을 화두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기본정신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21세기를 주도할 이념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뿌리부터 올바르게 세워야 하며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의 새싹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 빠른 시일내에 교과서 정정이 이뤄져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김미경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공립 문화예술기구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고 있다.

이에 본 지면은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지난 3일 세종문화 회관에서 주관한 정기포럼중 이상만 이사장이 발표한 '국·공립 문화예술기구의 전문적, 민간적 개혁'을 발췌해 싣는다.

짧은소식

학교 안에서

불교미술품 특별작품전

본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본교 불교대학원 및 문화예술대학원, 동국 불교미술인회 주최로 불교미술품 전시회가 열린다.

심창용 작 '관음보살', 정병국 작 '창밖 부처' 등 모두 23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90주년 기념 문화관 전시장에서.

학교 밖에서

'현상공모 투데이' 창간

현상공모 전문 정보지가 지난 15일 창간했다. 전문적 지식 없이도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참여, 주요 일간신문과 잡지의 독자참여 등 현상공모 응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연간 회원제로 운영되며 매달 2회씩 격주간으로 발행된다.

회원신청 275-2748

교성곡 용성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대음악회. 용성은 조선말 불교를 대각의식 운동으로 일으켜 세운 스님이며, 3·1 독립선언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한국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불교예술의 장이 될 것이다.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작곡 및 지휘를 맡았으며 본교 목정배 교수가 작시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70명을 비롯 각 사찰 합창단 5백여명이 출연해 연주하며 김성녀, 안숙선, 유희성 등이 출연한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일 7시 반, 토요일 오후4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274-1151

달하나 천강에

봄꽃과 물웅덩이

홍신선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날씨와 기온으로 보아 시절이 한달쯤 앞서서 간다는 요즈음, 온갖 꽃들이 순서없이 앞다투어 피고 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가 싶더니 벌써 벚꽃이 지고 라일락이 피었다. 봄꽃들에게 피는 시기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들의 개화는 예년의 우리 상식을 여지 없이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교정 여기저기 핀 꽃들만 해도 그렇다. 중문 옆 늙은 괴목의 라일락은 5월초 적당히 덥혀진 공기 속에 네 갈래진 통 모양의 합판화를 흔히 피우는 꽃, 그리고 조경석 틈에 웅크린 영산홍은 그늘 속의 꽃답게 5월의 녹음을 배경으로 늘 피던 꽃이다. 그러나 이들 꽃은 달포 가량 앞서서 지금 이곳에 피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마치 이상기후가 갖가지 꽃들을 한 공간안에 모아서 그 아름다움을 다투게 한다고나 할까. 이들 꽃은 달력과 무관하게 요즈음의 초여름(?) 볕 속에 앞다투어 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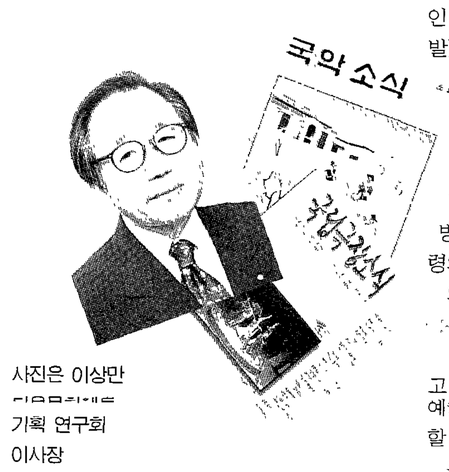
사물이나 사람의 값은 언제나 다른 것,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비교 속에서 드러나고 매겨진다. 이즈음의 꽃들도 순서없이 피어서는 같은 공간의 이웃 꽃들과 견주어지는 데에서 그 가치나 독특한 아름다움이 한결 돋보이고 있다.

일찍이 미얀마에서 경찰노릇을 했던 조지 오웰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오웰은 한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압송해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한다. 곧 얼마 안 있어 죽을 사형수가 물 고인 길 가운데 물 웅덩이를 피해가는 좀 엉뚱한 사실을 목도한 것이 그것이다. 따져보자면 이같은 부조리한 일도 있을 수 있는가. 바로 눈앞에서 목숨을 잃게 될 사형수의 처지에서 굳이 물웅덩이를 피해가는 그 행동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 터인가. 애써 말하자면 그 사형수는 사형이라는 머지않아 닥칠 운명에 전혀 개의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자기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 자기 할 일을 자기식대로 하는 인간의 놀라운 독자성이야말로 인간의 본디 참모습일 터이다.

비록 이상기후 탓이지만, 요즘 우리는 교정 곳곳에서 갖가지 꽃들의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기적처럼 만나고 있다. 또 IMF시대란 험난한 시절임에도 외부적인 어떤 간섭에나 억제와 상관없이 각자의 독자적인 내면과 인격을 가꾸고 키우는 젊은이들의 활기띤 모습을 오늘도 나는 보고 있다.

멀기만한 국공립 문화예술기구…민영화가 지름길

전문성·경쟁력 갖춰 재원조달능력 강화해야



사진은 이상만
기획 연구회
이사장

이는 국가기관의 운영에서 조차 민간적인 운영 기법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방안

국·공립 문화예술기구의 전문적·민영적 운영의 핵심은 그 구조와 운영방식의 개선에 있다. 공무원의 통제와 명령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화예술기구의 운영은 관료사회의 전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그 전속단체, 최근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KBS교향악단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기구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우선 문화예술기구 운영의 중추인 기구 단체장을 살펴보면 현재 문화·예술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장을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 나듯하고 설사 찾는다 해도 한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발전적 변화를 이끌기엔 역부족인 상태에 놓여있기 십상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단체장 임명은 근절돼야 하고 전문성은 이곳에서 시작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공립극장의 대부분은 소속단체들의 뒷바라지에 가장 많은 힘과 재정,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마치 소속단체를 부양하기 위해 극장이나 해당기구가 운영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공연을 양산하고 유능한 예술가를 공무원화하는 데만 기여할 뿐이다. 이에 전속단체들의 특수법인화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경쟁력 갖추기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정부지원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속단체가 자신의 부문에 경쟁력을 가져 직업화를 통해 재원 조달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기구는 공익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속단체의 특수법인화를 통한 직업화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이루는 첩경일 수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력관리는 충분한 일정기간의 계약을 맺는 고용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설비 또한 내실을 갖춰야 한다. 공공문화예술기구의 대중화는 전문모임이나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 논의의 전제

국·공립 문화예술기구의 민영화를 얘기하면 국·공립 기관들은 재정적인 지원 중단, 상업화를 생각해 지레 겁을 먹곤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것을, 특히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재정적인 독립은 우선적으로 재고돼야 할 부분이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민영화라는 것은 조직의 운영권이나 인사권에 관한 내용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는 의미로서의 민영화를 말하고자 한다.

지원방식

민영화의 관건은 '지원방식의 혁신'이다. 예산의 책정과 집행을 둘러싼 수많은 불협화음과 비효율성도 익히 지적된 바 있다.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일년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 경상비, 정부 산하단체 등에 지원돼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비율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지원주체를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식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며 지원방법 또한 개인, 단체기금의 활성화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국고지원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심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 것이다.

강조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운영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국고예산을 이유로 문예진흥기금이나 입장수입이 문화관광부 사업, 정부관련사업에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 기금이 국민과 예술인에게 재투자되기 위해서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 및 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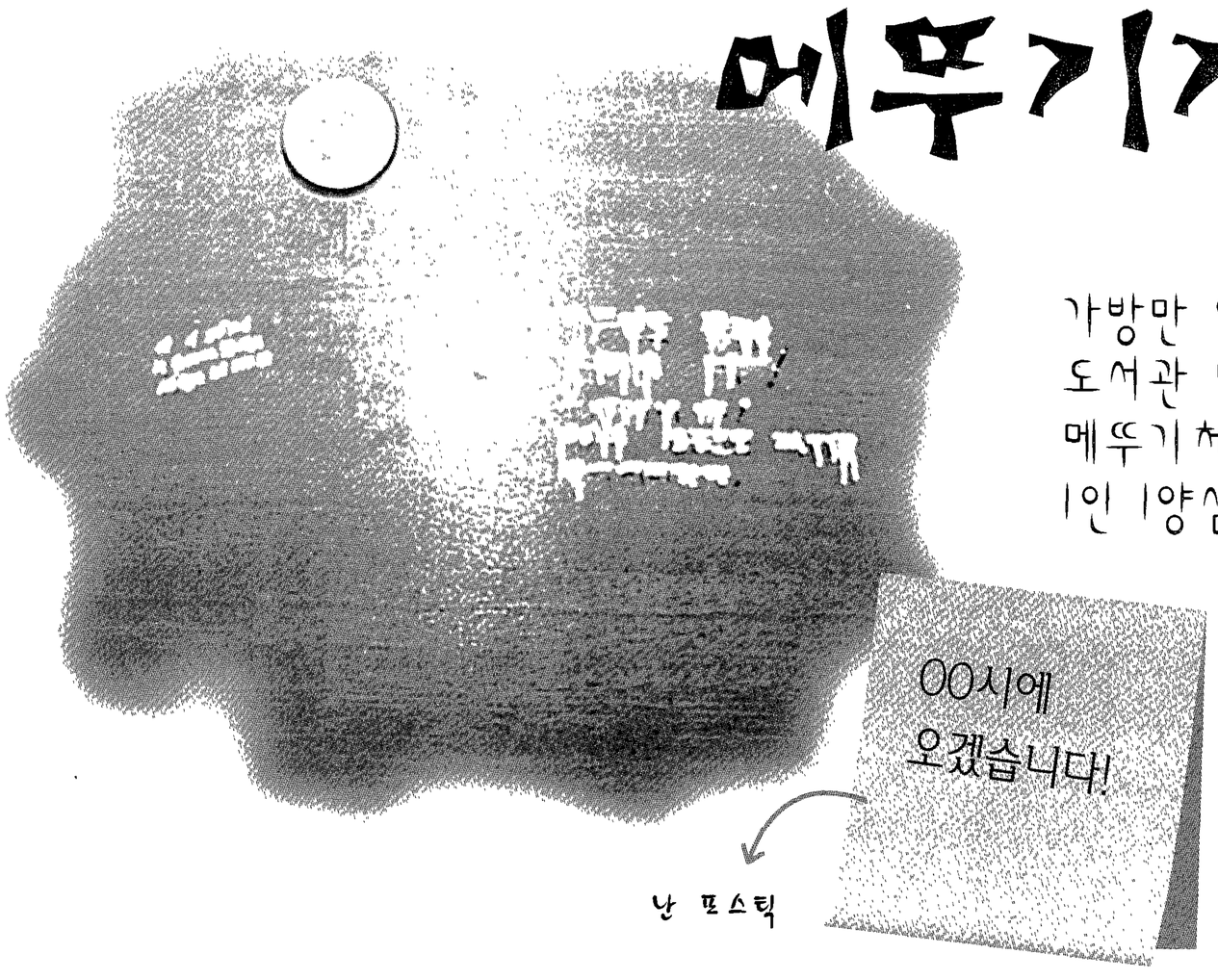
초등학교 이전부터 문화예술 교육이 정규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양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일 것이다. 전문성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확충돼야 하며 이로써 교육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기구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 체계적 개선, 운영방식, 지원방식, 종사자 재교육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관련 법령의 검토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최진 기자

동대신문 생활광고

메뚜기가 싫어요!



가방만 있고, 주인은 없는
도서관 빈좌석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지겹습니다.
1인 1양심을 지킵시다.

동대신문사

독립음반, 이제 시작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실험성·개성 뭉쳐 수용자 문화 창출

영국은 50년대부터 비인기음악을 내는 음반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7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자 그간 비주류에 속하던 펑크가 주류로 등장하게 되고 기업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음악을 생산하는 독립음반사들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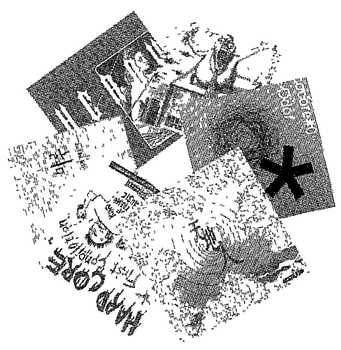
미국은 20년대부터 소수 흑인들만의 음악이 있었다. 전체 인구비 중 20%를 차지하던 흑인음악은 이후 독립음악으로 발전하여 50년대에는 백인 중산층 자녀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인종을 벗어나 다양한 음악을 생산·소비하게 되었다.

한국은 98년 초부터 독립음반의 제작·판매가 활성화됐다. 그리고….

인디 레이블(Indie Label)이라 부르는 독립 음반사의 활동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몇몇 클럽에서 독립 음반을 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독립음반사 '인디'처럼 독자적인 제작 시스템과 유통망을 갖춘 체계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나온 독립 음반만 해도 15장이 넘는다. 이러한 독립 음반의 출현은 상업주의에 찌든 우리 나라 대중음악계에도 개성과 실험을 생명으로 여기는 다양한 음악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알다시피 공중파 방송, 메이저 음반사, 거대 도매상의 먹이 사슬로 돌아가는 국내 가요산업의 스타 시스템은 한탕을 노리는 투기판에 불과했다. 댄스 음악이 팔린다 싶으면 모든 음반사가 풀빵 기계처럼 댄스 음반만 찍어내고 음악 수용자의 취향은 획일화되는 등 그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그러는 동안 한 나라의 대중음악이 그 문화적 창조력을 송두리째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독립음반 소개



천지인

94년 결성 이래 대학가에 유통된 '천지인 1집은 불법으로 정식 배포망이 없이 4만장이나 나갔다. 대학 사회에 민중록이라는 이름으로 록사운드를 최초로 도입 했으며 텔레비전 출연 한번도 없이 5년 째 이름을 날리고 있다.

청계천 8가, 열사가 전사에게, 혁명

메이데이

96년 겨울 '산자를 위한 발라드'로 데뷔한 이래 안정된 호흡과 강력한 메틀 사운드로 세련되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민중적 서정성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학교종이 땡땡이, 전선은 없다,

마루

하드록의 중후한 밑바탕에 록큰롤이 얹혀 있는 음악을 구사하며 '한국적인 우리만의 것'을 찾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록의 저변확대에 애쓰고 있다. 윤도현밴드 멤버들이 코러스로 참여한 데뷔 앨범을 4월 초에 발표해 공연 중이다.

공부하는 자 위에 나는 놈 있다, 어리버리

코코어

20여곡 이상의 자작곡을 가지고 줄곧 얼터너티브 록을 연주해온 코코어는 라이브의 찰나를 중시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리듬을 잘 타는 멤버들은 순간의 솔직함과 열린 자세로 나름대로의 음악세계를 새롭게 연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검은새, 4월

삼청교육대

부조리한 시스템의 배설물에 주목하자는 뜻에서 과감하게 삼청교육대를 화두로 달았다. 펑크와 하드코아의 마니어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킨 음악을 추구하며 2분 안팎의 곡을 담고 있다.

남경대학살, 제발, Money & Power

독립 음반은 이러한 반(反)문화적 현실에 대한 능동적인 개입이다. 독립 음반은 우선 스타 산업의 고비용 제작 관행을 깨고 저예산 제작 시스템을 도입해 음반 제작에 드는 거품을 뺐다. 기존 방식대로 하자면 음반 1종당 평균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들지만 독립 음반에서는 1천만원 안팎의 저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제작 비용을 줄이는 대신 독립 음반은 여력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일종의 다품종 소량 생산인 셈이다.

독립 음반에서는 음악적 개성이 뚜렷하고 실험성이 강한 음악이 대우를 받는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색깔, 이것이 독립 음반의 생명이자 매력이다. '인디'에서 나온 독립 음반만 열거해 보아도 '허벅지'의 풋풋한 아마추어리즘, '코코어'의 얼터너티브, '프리다칼로'의 서정미 넘치는 하드록, '마루'의 한국적인 록큰롤, '앤'의 풍만한 리듬감, 하드코어 밴드들의 유쾌한 펑크록 등 저마다의 갖가지 개성이 충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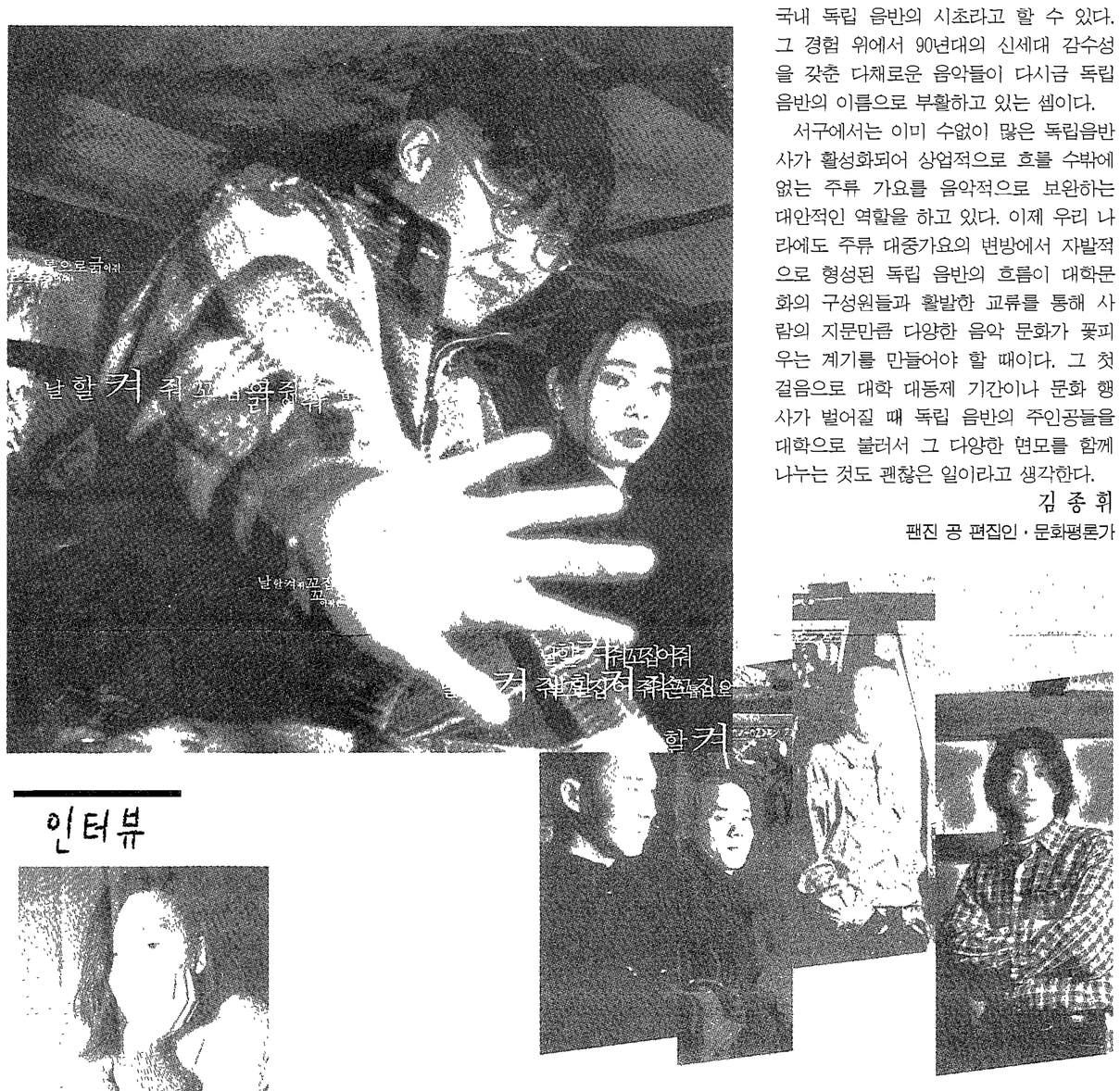
이런 독립 음반들이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레코드숍과 대학가의 레코드숍마다 '인디'라는 별도의 코너에 따로 진열되어 있다.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독립 음반사가 소매점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독립 음반의 특성에 대해 레코드숍 주인의 인식을 높이고 차별화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학생들이 독립음반을 찾는 일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독립문화를 수용자의 문화로 만드는 적극적인 문화 행위이다. 알고 보면 대학가에서 형성된 민중가요의 음반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제작되어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에서 독립 유통된, 국내 독립 음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경험 위에서 90년대의 신세대 감수성을 갖춘 다채로운 음악들이 다시금 독립 음반의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독립음반사가 활성화되어 상업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주류 가요를 음악적으로 보완하는 대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에도 주류 대중가요의 변방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독립 음반의 흐름이 대학문화의 구성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람의 지문만큼 다양한 음악 문화가 꽃피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 첫 걸음으로 대학 대동제 기간이나 문화 행사가 벌어질 때 독립 음반의 주인공들을 대학으로 불러서 그 다양한 면모를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종 휘

팬진 공 편집인·문화평론가



독립음반이란?

'독립'이란 남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 홀로 선다는 뜻이다. 이로써 남의 속박이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립음반을 하는 이들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바라는 것일까? 독립음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음반을 만드는 1차적 목적은 많은 음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반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방송을 타야하고 방송을 타기위해선 언론매체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음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음악을 이런식의 획일적인 잣대로 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음악외적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왜' 혹은 '어떻게' 독립음반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좀더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독립음반사는 제작과 영업 두파트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제작파트는 음반 제작 및 홍보를 담당하고 영업파트는 전국 판매의 유통을 담당하니 사실 음반의 기획단계부터 소비자의 손에 전해지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음반사에서 도맡아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산되고 판매된 음반들은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만 남기면 된다. 음반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독립음반의 반영구적 생산을 위해 다음 음반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벌면되는 것이다.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한편 이런 독립음반이 실질적으로 음반 제작·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로 '인디'라는 독립음반사가 생기고 나서이다. 이전에도 '독립'성격을 표방한 음반들이 나오긴 했지만 활동폭도 좁았으며 제작과 유통을 대부분 메이저에 의존해 독립의 의미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

인디 독립음반사는 3·4월 앨범 발매를 시작했으며 올 한해는 시스템 안착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98년은 '음악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음반사들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로 한국음악사에 새겨질 것이다.

최진 기자

인터뷰

허벅지밴드 리드보컬 안이영노 씨

"음악으로 언더그라운드 문화 싹틔운다"

새벽 2시반에 인터뷰 약속을 잡고, 다음날 한번의 헛걸음질 끝에 어렵사리 신촌에 있는 까페 '빵'에서 만난 '허벅지밴드'의 리더이자 보컬 안이영노(33)씨는 펑크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였다. 약간 긴 단발머리의 그는 보통손님처럼 면바지에 남방을 입고 무대 위 밴드들의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저 친구들 노래 들어야 되거든요. 이따가 하지요"하며 순식간에 기자를 손님으로 전락(?)시킨 그는 확실히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이었다.

한때 문화비평가로, 설치미술가로, 문화공간 기획자로 활약한 그는 어느날 문득 '내가 과연 행복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가 즐거워야 세상사람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른살이 넘은 늦깍이 나이에 음악을 시작해 펑크록밴드인 '허벅지밴드'를 96년 9월에 결성한 것이다.

5명 멤버들로 구성된 '허벅지밴드'는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말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실험정신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현재 홍대 근처 까페 '언더그라운드'와 이대 근처 클럽 '하드코어'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 자작곡 8곡이 실린 독립음반을 내기도 했다.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세를 타는 '허벅지밴드'를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면서 '인디'음악을 고수하는 밴드"

도대체 그가 말하는 '언더'와 '인디'는 무엇일까?

"세가지 기본정신이 언더정신을 이루지요. 다양성과 개성을 옹호하는 정신, 실험정신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작가정신, 마지막으로 저예산·재활용정신인데 이는 인디정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큰 자본과 이윤이 있으면 '잘 팔리는' 음악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독립음반은 이윤의 지배가 없이 작가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음악의 질로 승부해야 독립음반 시장이 발전합니다. 발전이라 함은 시장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질의 성장을 말하죠. 이를테면 학교의 생활협동조합처럼 유통구조개혁을 통한 소비자·생산자 직거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는 현재의 가요계처럼 수퍼스타만을 키운다고 해서 음반시장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철저하게 음악의 수용자인 팬(Fan)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여성운동을 하는 탓에 그의 성(姓)이 당연하게(?) 두 개가 돼버린 것과 비슷하게 그는 언더그라운드 밴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문화활동을 하게 됐다.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으로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싹틔우는 것. 바로 그것이다.

김미경 기자

영상매체비평

- TV편 문화방송 '성공시대'

시대착오적 낙관주의, 퇴행적 역사 낳을뿐

'잔인한 4월'이다. 갈수록 늘어가는 실업. 갈수록 길어지는 누료급식 대열과 노숙자들. 그리고 끝을 모르게 늘어서있는 구직행렬. 절망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현실에 그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들. 무너지는 가정, 풍비박산난 가족. 온통 가슴아픈 사연들로 피멍든 봄.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격랑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 격랑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봄은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이 아니라, 사막처럼 황막한 죽음의 계절. 그러므로 정말 '사막을 건너는 지혜'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절.

IMF의 경제관리가 시작되면서 나돌았던 불길한 풍문들이 빠르게 현실로 변하고 있다. 그와 함께 TV도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사막을 건너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다큐멘터리 성공시대'도 그런 류에 속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이다. 다큐멘터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완전한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드라마가 가미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는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인생은 새옹지마요, 고진감래이므로.

이런 말이야 사실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구체적인 현실의 인물을 통해 실현된 것을 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느낌은 훨씬 강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그냥 노력만 하면 된다고 속삭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공개하고 대중적으로 전수하려고까지 하는 것이다. 묵묵히 노력하되 '절차탁마'하라,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성공담이 이미 실패자가 되고 만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은 커녕 과연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을까? IMF 관련 프로그램들에서 대체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뭇 퇴행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면 된다'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진했던 군사파쇼 박정희가 경제발전의 영웅으로 부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의 퇴행이란 지금의 상황을 찢어지게 가난했던 60년대의 상황에 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고질적 병폐가 아닌가? 시대착오적 퇴행성은 이런 병폐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병폐일 것이다.

홍 성 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메아리

열쇠찾기

▲한 노인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다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묻는다. "응,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것도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젊은이는 할머니를 도와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가로등 밑에서 노인과 젊은이는 한시간여 동안 열쇠를 찾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은데도 보이질 않으니. 할머니 정말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리셨어요? "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아니·집 앞에서 잃어버렸어. 근데 그 곳은 어두워서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어. 밝잖아?"

▲현재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선 종합생활기록부가 있어야 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봐야하고 또 어떤 대학은 본고사도 봐야한다. 99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전형기간을 대폭확대한다는 교육부 방침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45년부터 대입제도가 무려 10번이나 바뀌는 동안 교육부에서는 대입고사가 변할 때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모두 개선될 것처럼 호언을 하곤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이지매 증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다지 향상되지 못한 교육의 질, 고가의 교육비,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락 등. 대학교육의 변화를 위해 교육개혁이 실시됐으나 그 실효에 있어서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 교육개혁 방안 또한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라면 언제 또다시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교육의 문제는 지나치게 입시위주라는 것이다. 학력주의·학벌주의 체제가 불러온 과잉교육열, 이에 인재양성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대학. 그 안에서 개인의 창의력은 묵살되고 상상력은 날개를 꺽이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할 직접적인 문제는 학력주의·학벌주의로 '허울뿐인 대학이라도 나와야 인간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이다. 이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다. 아무리 어둡다해도 노파는 집앞에서 열쇠를 찾아야 했다. 당장 보여지는 입시제도의 변화로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바라는 우리는 밝다는 이유만으로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으려하는 노파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최진 문화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학부제

△학:학생들을 이용해서
부: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만든
재:제도
△부족한 교육재정 말잘듣는 대학에만 주려는 기만적인 정책.
△학교, 학생 모두에게 부질없는 제도.
△시행하려는 순수의도는 좋지만, 준비없이 나가는건 NO!
△학부제를 하니깐 갈곳이 없어요! 계열실좀 넓혀주세요.
△대학을 움직이는건 학생이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자!
△학-부셔 뿌리제
△학:학교를
부:부실하게 하는
제:제도
△난 찬성. 전공 선택의 후회함을 방지.
△학부제 폐지할 생각전에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부제야 부제야 너는 어디에서 굴러먹다 왔니?
△학부제 철폐전에 현 학부 1,2학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부제?! 양면성이 있다. 나같은 새내기로서는 아직 그리 확고한 신념이 없다. 배움으로써 적성에 맞는 과를 찾고 싶다.
△확실히 부질 없는 제도
△확실한 선후배가 없어서 싫다.
△학부제로 인하여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과정을 맞고 있다.
△학부제라는 제도는 자기가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가 있어 아주 좋은 멋진 제도입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어학 초기 공부로 가는 지름길=학부제
△학:학생과는 상관 없는
부:부질없는 학교만의
제:제도
△선배가 1백명, 동기가 1백명. 하지만 난 늘 혼자.
△성적 좋은 소수에게는 혜택을, 열심히 하는 다수에게는 절망을.
△합칠걸 합쳐야지. 물이랑 소주가 같냐구?
△처음부터 완벽한 게 있겠어요? 방침이 철폐가 아니라 확대라면 그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또 학부제? 다음엔 식비, 또 그 다음엔 등록금 분할. 뭐 그 순서겠죠. 해결되지 않는 한 말이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투쟁도 공부도.

"고전음악 감상실에는 따뜻한 클래식이 있어요"

흔히들 요즘 세상에는 따분한 클래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클래식 보다는 Rock이나 댄스음악에 열광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도 훨씬 더 가슴을 파고 들기도 한다.

TV나 CF의 각종 배경음악으로도 클래식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사실상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은 대중가요가 아닌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내에서 마음껏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려한다. 그곳은 바로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고전음악감상실'로써 8백여장의 LP와 3백여장의 CD를 갖추고 학생들을 위하여 방송하는 곳이다.

포근한 빨간 의자와 따뜻한 백열전구의 간접 조명이 있고 고급엠프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갖게 해 준다. 또한 연주자와 작품제목, 작곡가를 직접 멘트로 소개해 주기 때문에 들었던 곡을 쉽게 잊지 않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고전음악감상실'로 달려오는 것이 최상책이다.

송진호 (인문과학대 외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부 학회실에 게시된 고(故) 김문찬학생의 글이 투고돼 이를 싣습니다.

금(金)남로 쇳소리에
다 썩어버린 그 몸뚱이
에미의 서러운 울음소리 들었는지

문상도 오지 않는 목마른 묘지는
풀한포기 나지 않는 벌건 그 땅은
설움에 목막혀서 한을 못 풀다

찬란히 빛나는 역사의 태양아
함성소리 때묻은 대지를 보듬고
얼룩진 이 땅의 눈물을 닦아라

김문찬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고(故) 김문찬학우의 명복을 빕니다.

동문칼럼

내일은 반드시 밝은 해가 뜬다

손 광 락
(한의 87졸 · 한의사)

어저께 할머니 한 분이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진찰과 상담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혼기를 놓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울산의 모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실직을 당하고 집에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자식 결혼 등 장래가 걱정돼 잠 못이루게 된 것이다.

그 놈의 IMF 때문에...

요즈음 어딜가나 이 얄궂은 영어 단어 얘기다. 아마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이 단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어느 누구나 이번 이외에는 꿈에서 조차 듣기도 말하기도 싫은 단어일 게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 이 단어를 한 발짝 조용히 물러서서 곰곰히 생각해 보자.

왜 이 용어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상륙했을까?

'사고 불감증'과 '정치 불신증'에 만연된 우리 대부분은 당연히 정치인, 대기업 경영주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허나 이 용어 상륙에 과연 나는 떳떳한가를 한 번 돌이켜보자.

나도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를. 내가 과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직장인, 대학생, 가족의 일원으로서 분수에 맞지 않는 사고나 행동은 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자.

신라 고승 충담 스님의 안민가 구절이 이 시기에 더욱 실감난다. 군(君)은 군(君)답게, 신(臣)은 신(臣)답게, 민(民)은 민(民)답게 할지니, 그러면 나라와 백성이 평안해 지리라던.

그렇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모두 '내 탓이오'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자.

IMF란 놈은 단지 우리에게 조금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괴물은 아니지 않는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던가. 너무 부정적, 비관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갖자. 이럴때일수록 어깨를 쫙 펴고 더욱 밝은 표정을 지어보자. 그리고 동악의 듬직한 코끼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굳세게 전진하자.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반드시 밝은 해가 뜬다.

정치쇼 지켜보는 국민들 '숲을 보는 지혜' 가져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엔 경기침체로 인해 허덕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복풍'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버리고 있다.

정치권은 대다수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관심을 노려, 부가세법이니, 총리인준문제니 하는 기존의 문제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언뜻 눈앞에 와 닿는 나무에만 집착하는 습관에 젖어있다. 슬그머니 사라져간 중요한 문제들은 그렇게 접혀지고 백지화되는 우리나라의 습성이 곧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형적인 발전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우리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시안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맛있고 달아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떡(이슈)을 던지면 우리 국민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근시안적인 시선을 과감히 떨치고 숲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백승현(상경대 국제통상학과)

'자발적 자원봉사' 동국인 일상으로 자리잡길

자원봉사에서 자발적이라는 '자원(自願)'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자원봉사, volunteer'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의지'를 뜻하는 'volo'와 '자유의지, voluntas'에서 유래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타인이나 물질의 힘에 의하지 않고 '자원'이라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에 봉사의 개념이 합쳐져서 이기적이 아닌 남을 위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시간과 신체적 혹은 경제적 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일이 어느 누구-보통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를 돕는 일일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전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자원봉사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재정립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화'되고 더 나아가서 '참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정립시킬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우리사회의 가족 이기주의와 열악한 자연,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우리들에게 과거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동국의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적 가치를 사회에 심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의 분위기가 새롭게 변화되며 진정한 동국인으로서 자원봉사가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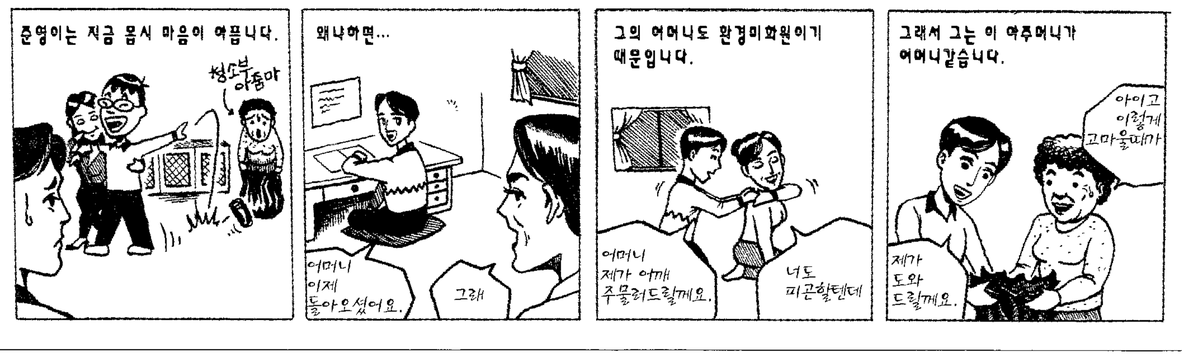
오 정 수
(생명자원과학대 생명자원과학부 교수)

독자만평

그림=만화열

동달이

김 경 일 〈5〉



중구지역의 식수중단관계로 화·수요일 양일간 식당영업이 제한됩니다.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다향관 학생 · 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잡채밥(1300) 어묵야채볶음(1300)
	김치비빔밥(2000) 새우볶음밥(2000)
화	소고기볶음밥(1300)
	돈까스(2500)
수	모듬볶음밥(1300)
	생선까스(2500)
목	불고기비빔밥(1500) 만두탕수(1300)
	오징어볶음(2500) 햄볶음밥(2000)
금	돈까스(1300) 콩나물볶음밥(1200)
	참치볶음밥(2000) 비프스튜(3000)
토	북어국(1200)
	삼선볶음밥(25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 · 학생식당 차림표

월	풋고추찌개(2800) 버섯잡채밥(3000)
	생선까스(1300) 부대찌개(1300)
화	참치전골(3000)
	제육볶음(1300)
수	곰탕(3200)
	김치볶음밥(1300)
목	낙지전골(3200) 철판볶음밥(2800
	짜장밥(1300)
금	배추조개국(2800) 해물덮밥(3200)
	스파게티백반(1300) 양지탕(1300)

(단위:원)

동악광장

목멱골

축하합니다.

△아시아 지역학부 학생회장 이 상 빈 생일 축하합니다. -마당 JUYOUNG
△현옥 언니, 지영아, 은희야,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하고 사랑해. -주영이가
△형중이형 산업 안전 기사 합격을 축하드려요, 2차도 꼭 합격하세요. -당쇠
△진영의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길 바래. -미정, 형태, 종헌
△경 · 통 98학번 윤이야! 생일 추카해. 4월 21일. -만성, 태석, 민석, 진휘
△유진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항상 밝게 지내라. -亭 中
△졸업한 사회 94 이윤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중위 최석진
△역교과 세리의 생일을 축하!! -珍

수고하셨습니다.

△기린들! M.T 다녀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연합 전진대회에서 동국대를 대표해 율동을 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볼탱이, 사범대 문화부장님, 부국교장 씀
△마당 여러분, 모꼬지 갔다 오느라 수고하셨구요, 헌주야! 힘내자! 사랑한다.
△30대 애국경상 해오름마당 준비하신 이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장 · 부단

열심히 합시다

△길이 유월 십사일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다시 한번 똘똘 뭉쳐 봅시다.
△백상기에서 사회학과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사과계열 오××
△차현이형! 새롭게 시작하세요. 다음엔 꼭 합격하세요 -L.A.E.99기 정혁

그리고...

△不敗社會 -사회 94 여학우 일동
△자주 영문 연합 모꼬지 잘 다녀왔습니다. 민우형 책 정말 감사해요.
-제 14대 자주영문 인옥
△시험의 목적이 성적은 아니다. 단지 학문을 위한 과정이다. 중간고사를 치는데 꼭 성적에만 끄달리지 말기를.
△종원아! 놀러 미국가서 안와도 돼
-무역 93, 94, 95 일동 & 경진
△노트북 급구 486 DX 70만 ~80만
-사회 홍욱현

온방골

축하합니다

△4월 26일은 불교학부 이쁜 호빵 소희의 생일입니다. 소희야 술 사그라이.
-천재의제 추종파
△4.19 불교학과 아웃사이더 일렬이의 고독한 생일을 축하한다. -6공파
△쪼그만 예쁜 은숙아 생일 축하한다.
-호우회
△종영이 오빠랑 종석이랑 편입 축하해요! 앞으로 재미있게 지내요. -지니
△4월 17일 우리 미령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터프
△우리 호우회의 '예쁜이' 은숙이 생일을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4월 17일 거룩한 탄생일을 맞이하야 우리 호우회인의 사랑을 전합니다. 축하혀. -호우회
△토함사학의 첫답사 축하드려요.
-14기 공주

수고 하셨습니다

△솔메리아 14일 신입생 환영공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멋졌어요. -?
△매경 취업뉴스 장재성 국장님! 취업특강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법학 학우
△연등단다고 수고한 98학번 불교문화대 여러분께. 성불하시길=유동스님 고생 많았다. -병호
△불교학과 선배님들과 우리동기들. '연등다시느라 3일동안 고생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둘째날은 탕수육 안사주셨나요?
-1학년중 가장 이쁜애들 모임

열심히 합시다

△싸랑하는 나의 반쪽아! 고민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힘내자! -너의 기사
△애오라지 신입생 여러분 워크샵 공연 훌륭하게 끝내기를. -97일동
△수교과 4년 여러분 교생실습 열심히 하고 졸업시험도 잘 봐요. -창

알립니다

△불교학과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불교학과 학회룸으로 와 주세요.

그리고...

△나 왔다간다. 난영이(한국어문학부98) 만나러. 저는요(경희대97) 이틀 놀고 지금 가려 합니다. -진수
△대희오빠! 4월 21일이 우리 3백일째 만남이네요. 벌써 앞으로 오빠앞에 항상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길 바랄께요.
△진우 오빠 밝게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조금의 여유를 가지도록 노력해요.
△한국어 문학부 난 오직 연희만을 생각해요. 언제나 좋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번호 운전면허 취득자가
△깜찍이! 밝고 순수한 그 모습 영원히!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행복을. -sok